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한 권의 책이 삶을 뒤흔든다 아주 특별한 전주 '도서관 여행'

여행이라는 말이 이토록 달콤할 수가 없다. 코로나19로 참고 미웠던 여행이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왔다. 신록이 물든 산과 들로, 길 위에서 자유로운 여행자들의 모습이 싱그러운 봄을 더 기쁘게 한다. 고즈넉한 한옥마을과 창의적 문화 재생 사업, 드라마 촬영지 등 아름다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에 또 하나의 특별한 여행이 있다.



전주 도서관 여행 '빨간 버스'

빨간 버스를 타고 떠나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전주만의 '도서관 여행'이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여행 간다'라는 슬로건으로 버스를 타고 전주 곳곳의 도서관을 둘러보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한 전주시는 도서관을 시민의 공공 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자 혁신적 변화를 모색해왔다. 학습실 없이 트윈세대(12~16세)를 위한 전용공간 '우주로1216'을 마련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해 평화·삼천·금암·인후·송천도서관 등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책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생동감 있는 창의 공간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화도서관이 속속 들어서면서 시민은 물론 여행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전주시청 로비의 책 기둥 도서관, 자연 속에서 시를 즐기고 창작할 수 있는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책을 쓰고 만들 수 있는 자작자작 책 공작소, 여행자 전문도서관인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여행자도서관', 그림책 전문도서관인 팔복예술공장의 이팝나무 그림책도서관, 헌책 도서관, 자원봉사 전문 도서관 등이 그것이다.

또 개관 준비 중인 덕진공원 연꽃 호수에 자리한 연화정 도서관과 이중호수변에 길이 101m 규모의 이중호수도서관은 관광지와 도서관이 결합한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멈춤과 쉼, 힐링의 시간을 여행자에게 선물한다. 삼삼오오 모여든 여행자들이 가방 대신 책을, 선글라스 대신 안경을 챙겨 들고 전주 곳곳의 도서관을 둘러보며 그 장소만의 이야기를 느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는 철학이 있는 여행이다. 여행자들은 도서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인생의 책' 한 권을 만나기도 하고, 특색있는 도서관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속의 여행'을 즐기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쉽고 힐링이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전주의 도서관 여행을 '복강스'라고도 부른다.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라는 문구가 다가 여행자도서관에 적혀있다. 여행자들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책으로 만들고,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여행으로 만들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주 3회(하루 코스 1회, 반일 코스 2회), 사전예약제, 회차당 10명 이내로 도서관 여행 기간과 횟수를 늘리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특히 여행자들의 취향과 편의를 고려해 단일 코스에 4개 주제별 반일 코스가 새롭게 더해졌다. 또 도서관에서 인생 사진 남기기, 필사 체험 등 특색있는 체험 행사와 저자 강연과 글쓰기 등 도서관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도서관을 즐길 수 있게 했다. 현대사회는 변화와 속도의 시대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멈춰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쉽지가 않다면, 우리 사회에 영혼의 울림은 메마르고 진정한 행복의 가치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의 아름답고 특별한 도서관에는 따뜻한 쉼과 삶의 빛나는 가치가 있다"며 "여행자들에게 도서관 여행은 '인생의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각자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⑤



1 전주시청 로비의 '책 기둥도서관' 2 첫 마중길 여행자 도서관 3 자작자작 책 공작소



1,000만 그루 나무로 도시가 정원이 됩니다

희뿌연 먼지구름 대신 푸르른 하늘을,
펼 펼 끓는 아스팔트 대신 시원한 그늘을,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대신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정원도시 전주 -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로 전주가 더 쾌적해집니다.



미세먼지가
40.9% 줄어듭니다



기온이
3~7°C 낮아집니다



자동차 소음이
75% 줄어듭니다

1,000만 그루
정원도시전주